

한국에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심볼을 가정연합의 대표 상징으로 사용하며, 행사 팸플릿이나 가정교회 간판의 제작 시에는 오른쪽에 통일교회 심볼, 왼쪽에 가정연합 심볼을 동시에 사용한다.

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





축복결혼식

축복결혼의 원리적 의의와 유래

축복결혼식은 하늘부모님께서 인간조상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내려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8)는 3대 축복의 말씀을 실체적으로 탕감복귀하여 하늘부모님의 창조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의식이다.

축복결혼은 타락한 인류가 메시아이신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청산하고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공식적인 조건을 실체적으로 세우는 구원 의식이다. 또한 축복결혼은 아담과 해와가 인간 책임분담으로 지켜야 할 계명(창세기 2:17)의 말씀을 불신함으로써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이 실현되지 못하였던 것을 탕감복귀하는 실체적 조건을 세우는 의례이다. 그리고 하늘부모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찾아 이루는 중생과 부활의 축

복예식인 것이다.

축복결혼을 통하여 참사랑을 중심한 이상가정의 완성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종교와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여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가족의 평화이상이 실현된 천일국을 창건해 나간다.

참부모님께서 1960년 4월 11일(음 3.16) 성혼식을 올림으로써 하늘부모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참가정이 땅 위에서 처음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참부모님의 성혼식을 기점으로 축복결혼은 3가정, 36가정, 72가정, 120가정, 430가정, 777가정, 1800가정, 6000가정, 6500가정으로 이어졌으며, 1992년도부터는 3만가정, 36만가정, 360만가정, 3600만가정, 4억 가정으로 이어졌다. 이후 섭리적 승리권에 맞춰 축복식 명칭이 부여되면서 축복의 세계화와 영계의 영인들을 포함하는 축복의 천주화를 이루게 되었다.

축복결혼식의 구분

1) 미혼 축복결혼

미혼 축복결혼은 축복가정 자녀가 아닌 미혼남녀가 메시아인 참부모님을 믿는 기준 위에 허락하시는 은총에 의해 하는 축복결혼으로서, 타락으로 무지에 떨어진 인간이 참부모님으로부터 원리말씀을 듣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선남선녀의 자격을 갖추고 하늘부모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하늘부모님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2) 기성 축복결혼

기성 축복결혼은 이미 결혼한 기혼가정의 축복결혼으로서, 참부모님께서

밝히신 원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성별 정성을 통해 타락 이전 약혼단계의 남녀 입장을 복귀하는 조건을 세워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3) 독신 축복결혼

독신 축복결혼은 부부가 사별하여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혼자서 받는 축복결혼을 말한다. 지상에 실체는 없으나 사후 영계에서 만날 대상을 조건으로 세워 결혼을 하여 영육계를 연결하는 참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4) 축복가정 자녀 축복결혼

축복결혼한 부부가 낳은 하늘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자녀들이 미혼남녀 축복결혼의 과정을 이수하고 참부모님의 주례하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의식이다.

5) 영육계 축복결혼

영육계 축복결혼은 기혼 독신축복을 받고 영계의 배우자와 축복결혼을 하는 것으로, 협회 본부에 신청을 한 후 HJ천주천보수련원의 일정에 따라 참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참부모님의 섭리적 승리의 기반과 영계에 계시는 홍진님과 대모님의 정성과 수고의 터전 위에 이루어진다. HJ천주천보수련원의 연간 계획의 일정과 필요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영육축복가정이 된다. 영육계 축복결혼은 천지인참부모님께서 지상의 배우자와 영계에 간 배우자가 참부모님의 축복을 통해 영원한 축복가정이 되어 부부로 같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이다.

6) 영인 축복결혼

영인을 위한 축복결혼은 영계에 가 있는 축복가정의 조상 부부 직계와 방계의 축복결혼을 말한다. 참부모님의 섭리적 승리의 기반과 영계에 계시는 홍진님의 정성과 수고의 터전, 그리고 지상에 있는 후손 축복가정의 협조 위에 이루어진다. 지상에 축복가정 후손을 갖지 못한 영계의 영인들은 축복결혼에 참여할 수 없다. 참부모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한다. 지상의 후손 된 축복가정에 의해 먼저 해원의식을 거쳐 100일간의 수련과정을 완료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430대까지 진행되고 있다.

축복결혼식의 절차

1) 약혼식

약혼식은 아담 해와가 약혼단계에서 타락한 것을 탕감복귀하는 의식으로서, 축복의 조건을 갖춘 미혼 1세 남녀와 축복가정 자녀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인간 책임분담인 절대적 믿음으로 배우자를 결정하는 의식이다.

2) 성주식

성주식은 타락한 인간이 참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는 조건을 세움으로써 사탄의 혈통을 하늘부모님의 혈통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3) 축복결혼식

축복결혼식은 성주식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혈통으로 전환한 신랑과 신부

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결혼하는 것을 온 천주에 선포하는 의식으로서, 천주적으로 국제합동결혼식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4) 탕감봉 행사

탕감봉 행사는 인류시조인 아담 해와가 하체(영덩이)를 잘못 써서 타락한 것을 탕감복귀하는 의식이다.

5) 40일 성별기간

축복받은 가정은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4위기대 탕감복귀를 위한 40일 동안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성별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성별기간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심정적으로 하나되어 자신이 참부부로서 태어날 수 있는 재창조의 인간 책임분담 승리기간이 되어야 한다.

6) 3일행사

1세 미혼남녀가 축복결혼식 후 40일 성별기간이 끝난 후에 가지는 3일행사는 부부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던 인간 책임분담 성장기간을 실체적으로 탕감복귀하여 본연의 참된 부부로 다시 태어나는 조건을 세우는 의식이다.

약혼식

1) 의미

약혼식은 아담 해와가 하늘부모님이 주신 계명을 약혼단계에서 지키지 못

하고 타락한 것을 탕감복귀하는 의식이다. 약혼자들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배우자를 결정함으로써 하늘부모님에 대한 아담과 해와의 불신죄를 청산하고 하늘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조건을 세우는 의식이다.

기혼 부부가 축복결혼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축복식에 참여하기 전 일정기간 부부간에 성별기간을 거쳐 아담과 해와가 약혼단계에서 하늘부모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것을 탕감복귀해야 한다.

2) 약혼 절차

원리말씀을 듣고 문선명·한학자 총재 양위분을 구세주·메시아·재림주·참부모님으로 믿고 모시며 따를 것을 결심하면 교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한다. 협회가 결정한 일정기간 원리교육과 신앙적 수련과정을 거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 교회장의 추천을 받아 축복서류를 협회본부에 제출한다.

축복서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자는 약혼을 받을 수 있는 선남선녀의 자격을 갖춘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이상상대(理想相對)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중심한 이기주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 가운데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간 책임분담으로 결정해야 한다.

3) 약혼식 순서

- 개식선언
- 준비찬송
- 가정맹세 제창
- 보고기도
- 말씀

- 신랑신부 인사
- 약혼서약식
- 축도
- 기념사진 촬영
- 폐식선언

성주식

1) 의미

성주는 참부모님이 승리하신 탕감복귀섭리의 기대 위에서 땅 속과 땅 위, 그리고 공중에 맺는 21가지 열매들로 만들어진다. 하늘부모님의 사랑과 소망 속에 만들어진 성주는 참부모님의 혈통을 의미한다.

성주식은 타락한 인간이 절대신앙으로 참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아 사탄의 혈통을 청산하고 하늘부모님의 혈통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탕감복귀원리에 의해 성주식은 사탄의 혈통이 아담과 해와에게 들어온 과정과 반대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즉 성주식의 순서는 아담 해와 타락의 과정과 반대의 과정이다. 타락의 과정은 사탄(천사장)이 해와를 타락시키고,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키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성주식은 기본적으로 1세 미혼남녀의 축복을 위한 절대적인 필요 의식이며, 입적을 위해서는 축복가정 자녀도 성주식을 거행한다.

2) 성주식의 순서

- 성주식 참여자는 참부모님께 경배를 드린다.

- 복귀된 천사장 입장의 사람이 성주잔을 참어머님께 전달한다.
- 참어머님은 참아버님께 전달한다.
- 참아버님은 중생하려는 부부의 아내에게 전달한다. 아내는 참아버님께 경배한 후 성주잔을 받아 반을 마신다.
- 남편은 아내에게 경배한 후 성주잔을 받아 나머지 반을 마신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경배하고 빈 잔을 돌려준다.
- 아내는 참아버님께 경배하고 빈 잔을 돌려준다.
- 참아버님은 참어머님께 빈 잔을 돌려준다.
- 참어머님은 복귀된 천사장 입장의 사람에게 빈 잔을 전달한다.
- 참부모님께서 축도를 하신다.

3) 성주식 축도

참어머님의 왼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한다. 주체의 오른손을 참어머님의 손 위에 얹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한다. 그 위에 대상의 오른손바닥이 땅을 향하도록 하여 주체의 오른손바닥을 덮는다. 그 위에 주체의 왼손바닥이 땅을 향하도록 하여 대상의 오른손 손등을 덮는다. 그 위에 대상의 왼손바닥이 땅을 향하도록 하여 주체의 왼손 손등을 덮는다. 그 위에 참아버님의 오른손바닥이 땅을 향하도록 하여 대상의 오른손 손등을 덮는다.

축복결혼식

1) 의미

축복결혼식 성주식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혈통으로 복귀된 부부가 하늘부

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결혼하는 것을 온 천주에 선포하는 의식이다. 축복식의 순서 중 성수의식은 외적으로는 거룩한 물로 참석한 부부의 지난날의 죄를 깨끗이 닦아내는 의미를 가지며, 내적으로는 참어머님의 복중을 통해 부부가 다시 태어나는 의미를 갖는다.

축복식 순서 중 성혼문답을 통해 축복받는 부부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참된 자녀로서, 참된 부부로서, 참된 부모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2) 성혼문답

그대들은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할 선남선녀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천지인참부모님이 세우신 전통을 이어받아 천일국이 지향하는 이상가정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느뇨?

3) 축복결혼 순서

- 개식선언
- 천일국가 제창
- 보고기도
- 예식사
- 축원
- 들러리 입장
- 주례 입장
- 고천문
- 성수의식

- 성혼문답
- 축도
- 예물교환
- 성혼선포
- 꽃다발 봉정
- 기념품 봉정
- 축사
- 축가
- 신랑신부 인사
- 억만세 삼창
- 주례 퇴장
- 폐식선언

탕감봉 행사

1) 의미

축복식 후 탕감봉 행사를 한다. 타락은 하체를 잘못 써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탕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우는 것이 탕감봉 행사이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대신한 입장에서 상대방의 엉덩이를 격타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써 서로가 저지른 과거의 마음과 몸의 잘못을 탕감해 주는 의식이다.

아담과 해와의 잘못을 탕감복귀하여 영원한 부부로 살아가면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그리고 선배, 동료가정 앞에 화목을 맹세하는 뜻으로 행한다.

3차례의 격타는 3단계(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와 3시대(구약, 신약, 성약)를 탕감복귀한다는 의미이다.

2) 탕감봉 행사의 순서

- 개회
- 경배
- 가정맹세 제창
- 보고기도
- 말씀
- 행사 진행에 대한 설명
- 탕감봉 행사
 - 참부모님께 경배
 - 주체와 대상 맞절
 - 주체가 대상을 힘껏 3차 격타
 - 대상이 주체를 힘껏 3차 격타
 - 참부모님께 경배
 - 주체와 대상 맞절과 포옹
- 축도
- 경배
- 폐회

40일 성별생활

축복식에 참여한 1세 미혼 축복가정 부부는 축복식 후 4위기대 탕감복귀 수인 40일 동안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성별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성별기간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심정적으로 하나되는 기간이다. 아내는 복귀된 해와의 입장으로서, 타락한 해와가 잃어버린 하늘부모님과 심정적 일체불가분의 입장을 확립하여 남편과 심정적으로 하나되어야 한다. 남편은 복귀된 천사장 입장에서 아내가 성별기간을 뜻 맞게 충실히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축복가정 자녀의 경우는 성별기간의 의미와 함께 본연의 자녀 입장에서 3대 축복을 완성할 것을 결의하는 정성의 기간으로 지낸다.

3일행사

1) 의미

성별기간이 끝난 후에 실시하는 3일행사는 부부가 참부모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조건을 세우는 의식으로서, 아내가 먼저 복귀되어 남편을 다시 낳아 주는 과정을 외적으로 행하는 의식이다. 3일행사는 부부가 예복을 입고 성초를 밝히고 하늘 앞에 보고기도를 드리고 해야 한다. 3일행사를 하지 않으면 외형적으로는 축복가정의 이름을 가지고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온전치 못한 것이다.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2) 3일행사 순서

첫째 날은 구약시대를 복귀하고 복귀된 아담을 낳는 의미로서 아내가 상위의 자세로 부부가 사랑한다.

둘째 날은 신약시대를 복귀하고 예수님을 낳는 의미로서 아내가 상위의 자세로 부부가 사랑한다.

셋째 날은 복귀된 남편이 아내를 재창조하는 의미로서 남편이 상위의 자세로 부부가 사랑한다.

축복가정 자녀 축복결혼식

축복가정 자녀들의 축복결혼의 절차는 약혼식과 축복식만이 필요하다. 축복가정 자녀들은 탕감복귀원리에 의하여 실시하는 성주식, 탕감봉 행사, 40일 성별기간, 3일행사 등의 의식은 행하지 않는다.

일반 미혼남녀의 약혼식은 탕감복귀의 의미가 있지만, 축복가정 자녀들의 약혼식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는 의식이다. 현재 40일 성별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은 본연의 선남선녀로서 축복받은 기준에서 3대 축복을 완성할 것을 결의하는 정성과 신앙적 자세를 고취시키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합동결혼식에서 성수의식과 성혼문답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참된 가정이 될 것을 다짐하는 의식이다.

영육계 및 영인 축복식

1) 영육계 약혼수련회와 조상해원식

영육계 축복결혼에는 영육계 약혼수련회가 있으며, 영인 조상축복의 경우 조상해원식이 있다. 영육계 약혼수련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 형제자매, 만 18세 이상의 손자손녀, 믿음의 부모나 믿음의 자녀, 교회책임자 등이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조상해원식은 축복가정의 후손들이 참석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임재한 조상들을 해원하고 그들이 참부모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식이다.

1) 100일 교육

영육계 약혼을 받은 영인 조상들 또는 해원된 영인 조상들은 홍진님 영계수련소로 가서 100일 동안 수련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원리와 말씀을 배우면서 자범죄, 연대죄, 혈통죄로 얼룩진 영인체를 깨끗이 닦아낸다. 지상에 있는 배우자나 후손인 축복가정은 영인 조상들이 100일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 함께 정성들이는 생활을 해야 한다.

2) 성주식 및 축복결혼식

100일 교육을 받은 영인들은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거행하는 성주식과 축복결혼식에 참여한다. 영인 조상축복의 경우 영인 조상들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후손 축복가정이 성주를 받아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받쳐 가슴 높이로 올려 영인 조상들이 흠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후손 축복가정이

마시면 안 된다.

영육계 축복의 경우는 성주를 받아들이고 영인이 흠향할 수 있도록 한 뒤에 본인이 다 마신다. 대리로 참석한 경우는 성주를 받아들이고 영인이 흠향한 뒤에 손가락으로 성주를 찍어서 사진에 있는 축복자 입에 묻혀 준다. 그리고 축복식이 끝난 뒤 성주를 받아 집에 가서 축복자가 마시게 한다. 대리자가 마시면 안 된다.

후손 축복가정이 축복식에 참여하고 성수를 몸에 맞음으로써 후손에게 임재하고 있는 영계 조상들도 성주를 마시고 축복식에 참여한 조건을 갖게 되어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3) 40일 성별기간 교육

축복받은 영인들은 절대선령이 되어 다시 홍진님 영계수련소에 가서 40일 성별기간을 거치며 축복가정의 가치와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4) 3일행사 및 가정생활

영육계 축복가정은 가정출발 수련회에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3일행사를 통해 축복가정으로서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영인 축복가정은 지상에 재림하여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영인 조상들을 각 가정으로 모시기 위한 2일 수련을 받은 후손 축복가정을 따라가서 후손을 협조해야 한다. 후손들은 영인 조상들에게 가정 사정을 보고하고 협조를 부탁드린다.

5) 영인 조상축복식 식순

○ 개회선언

- 들러리 입장
- 주례 입장
- 성초 점화
- 영계 신랑신부 입장
- 보고기도
- 주례사
- 성주식
- 성수의식
- 성혼문답
- 축도
- 성혼선포
- 축가
- 꽃다발 봉정
- 케이크 커팅
- 억만세 삼창
- 축복받은 영인 퇴장
- 주례 퇴장
- 사진촬영



출산 및 출산기도회

부부사랑과 임신

인간의 부부사랑은 단순히 번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부부의 결합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은 지극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발전할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이다.

축복받은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때 하늘부모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자신의 남성적 성상과 여성적 성상이 하나되는 것을 느껴 기뻐한다. 결국 하늘부모님의 임재 중에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 즉 자녀들이 주어진다. 축복자녀는 하늘부모님께서 직접 관여하시어 탄생한 자녀이며, 그런 점에서 하늘부모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부모라고 할 수 있다.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부부사랑의 살아 있는 증표이다.

참아버님께서 2004년 12월 2일에 하신 ‘참부모는 하나님과 인류의 소망’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부부간의 관계는 처음부터 혈연으로 맺어진 절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자란 환경과 처지가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 새로운 생을 함께 창조해 나가는 실로 혁명적인 결단이요 결심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참사랑으로 일심일체가 되면 혈연보다도 더 강하고 절대적인 관계로 변합니다. 부부관계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하늘을 중심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고 나면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절대 관계가 됩니다.” (478-292, 2004.12.02)

축복받은 부부의 성생활은 하늘부모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매우 귀하다. 하늘부모님의 생명의 씨앗은 남편의 몸에서부터 아내의 자궁으로 들어가 지상에 새생명으로 탄생하게 된다. 참아버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본궁인 생식기는 사랑의 왕궁이요, 생명의 왕궁이요, 혈통의 왕궁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것을 붙들고 살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것을 붙들고 살고, 자기 부부도 그것을 붙들고 살고, 앞으로 태어날 아들딸들도 전부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 쌍소리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거룩한 소리입니다. 거룩한 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사랑이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혈통이 나옵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범하는 사람은 생명의 세계, 사랑의 세계, 역사세계의 환영을 못 받습니다.” (210-101, 1990.12.01)

참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탄생을 통해 하늘부모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즉 인간은 사랑을 통해 태어나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 수평으로 사랑을 넓히면서 성숙하게 된다. 두 남녀가 하늘과 지상의 사랑을 대변할 수 있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하고 만나게 될 때 그 수평적 사랑이 첫 단계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사랑의 결실인 아들딸은 심정의 핵심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부부가 심정을 바탕으로 사랑을 나누어 아이를 가지게 될 때 그 아이는 사랑의 중심으로 가는 길을 만들게 된다. 이 중심을 통해서 부모는 하늘부모님과 직결하게 된다.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될 때 인간은 하늘부모님이 창조 당시 가졌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된다. 다음은 4대 심정권의 완성에 대한 참부모님 말씀이다.

“아무리 귀하고 훌륭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면 영원히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위치는 첫 아기가 태어나서 도착의 일성을 외쳐대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기쁨을 느끼기 위한 창조의 역사입니다.” (478-296, 2004.12.02)

참부모님께서서는 축복받은 부부들에게 피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아이의 탄생은 가장 귀한 사건이며, 부부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주는 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임을 죄로 여기지는 않는다. 부부사랑의 목적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성스러운 사랑의 행위를 경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즉 자연스러운 피임방식을 택할 수 있다. 참아버님께서 피임을 하던 축복가정에게 피임을 했다는 걱정보다 이미 태어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게 힘쓰라고 하셨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필요한 치료를 받기를 권한다.

자녀의 가치

참아버님께서 자녀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녀가 뭐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교육할 수 있고, 그것을 가르쳐 주고 체휼하게 하기 위한 것이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어 놓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시조를 지어 놓고 기뻐했던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들딸을 낳아야 합니다.” (142-119, 1986.03.06)

“아들딸을 낳고 위하는 것은 세계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들딸이 세계와 연결되고 미래와 연결됩니다. 아들딸이 없으면 미래와 연결이 안 됩니다. 미래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교육의 재료로서 아들딸을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영계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영계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135-121, 1985.10.04)

“자녀는 부모, 즉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결실이요, 그다음엔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참된 자녀를 가졌다는 것은 우주 전체의 사랑을 대할 수 있는 자리에 비로소 내가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082-276, 1976.02.01)

태교

태교란 태아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최고의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태아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탄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다. 부부에게는 아이를 위한 성스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도생활 및 명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참아버님께서 태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태교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행동하면서 바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력이라는 것은 강한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그 정신력이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재생하는 능력을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면서 무한히 투입하는 것입니다. 투입해서 작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투입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224-152, 1991.11.24)

“사랑은 어디서부터 올려 나오는 것이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입니다. 먼저 어머니의 사랑부터 받는 것입니다. 자식을 중심삼고 상대적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도 사랑을 하지만, 자식이 배 안에 있는 열 달 동안 고이고이 품고 다칠세라 상할세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말도 조심하고 생활도 조심하고 모든 태도도 단정히 하여 태교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복중에 있는 아기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 사람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044-106, 1971.05.06)

출산기도회

출산기도회는 참부모님의 만딸인 문예진님의 탄생(음력 1960년 12월 11일) 때부터 시작되었다. 출산기도회는 태아가 사탄으로부터 분립하여 성별된 가운데 건강하게 태어나 하늘부모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례이다.

해산초(칠성초)를 켜고 순산을 위해 가족과 가까운 삼위기대 가정이 모여 기도한다. 출산 시 기도회를 갖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출산 이후라도 해야 한다.

1) 출산기도회 준비

- 참부모님 존영, 성초(해산초, 7개), 성성냥, 촛대, 성염 등을 준비한다.
- 출산기도회는 가정이나 교회 또는 병원 안에서 한다.
- 필요 시 성염으로 출산기도회 장소를 성별한다.
- 가정에서 할 경우 북쪽으로 단을 준비한다.
- 단상에 흰색이나 밝은 색의 천을 깔고 참부모님 존영과 성초를 놓는다.

2) 출산기도회 순서

- 성초 점화: 성초는 출산 전에 점화하고 출산 후 5분 정도 밝힌다.
- 찬송: 성가
- 보고기도
- 말씀훈독 및 기도
- 찬송: 성가
- 각자 기도: 참석자 모두가 합심하여 산모와 아기를 위해 기도한다.



봉헌식과 103일식, 성인식

봉헌식

봉헌식은 축복가정이 태어난 자녀를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바치는 의례로서, 하늘부모님과 본연의 부자관계를 맺게 하는 의식이다. 출산한 축복가정은 하늘부모님의 자녀를 양육하도록 위탁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하늘부모님께 자녀를 참사랑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러 쓰시도록 최선을 다해 양육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다.

축복자녀는 부모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늘부모님께서 맡기신 ‘하늘부모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식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고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해야 된다.

하늘부모님께서서는 축복가정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넓히려고 하신다. 축복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는 하늘부모님의 뜻에 충실하고 하늘부모님을 깊이 사랑하는 아들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니고, 이를 위해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을 완수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봉헌식은 이러한 자각, 결의, 그리고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하늘에 바치는 의식이다.

1) 봉헌식 지침

봉헌식 일자와 시간은 자녀가 태어난 후 태어난 날을 첫째 날로 계산하여 8일째 되는 날 아침 7시에 행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봉헌식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12일, 21일 혹은 40일째 날을 택하여 정식으로 봉헌식을 거행한다.

봉헌식에는 가족과 삼위기대 가정, 그리고 가까운 믿음의 자녀 가정 등을 초대해서 함께 봉헌식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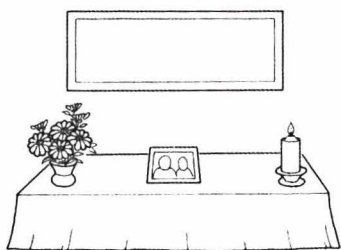
봉헌식 준비 및 과정을 보면, 아기 부모는 목욕을 하고 예복을 입어야 한다. 아기도 목욕을 시키고 예복을 입히거나 흰색 또는 밝은 색깔의 새 옷을 입힌다. 봉헌식 장소를 성염으로 성별한다. 북쪽으로 단을 준비한다. 단상에 흰색이나 밝은 색의 천을 깔고 참부모님 존영과 성초를 놓는다.

성초를 하나 켜 경우는 단상 맨 앞 중앙에 놓는다. 성초를 두 개 켜 경우에는 존영 양쪽에 놓는다. 준비된 봉헌식 현수막(이름, 탄생일, 봉헌일 표기)을 벽에 부착한다.

봉헌식은 축복가정 부모가 직접 주관해야 하며, 어느 한 쪽이 부재중일 경우라도 한 쪽이 부부를 대신하는 입장에서 드린다. 쌍생아일 때는 부부가 각각 아기를 안고 봉헌식을 행한다.

2) 봉헌식 순서

- 성초를 밝힌다. (그림 ①)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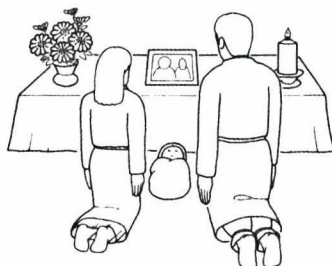


❷

❸



❹



- 아기와 부모는 단을 향하여 선다. (그림 ❷)
- 묵도를 드린다. 아기가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하는 심정으로 보고드린다.
- 부모는 무릎을 꿇고 하늘부모님께 아기를 봉헌한다는 뜻에서 아기 머리가 단상 쪽을 향하도록 약간 위로 들어 올린다. (그림 ❸)
- 아기를 머리가 북쪽을 향하도록 단 앞에 눕힌다. (그림 ❹)
- 전체 1배 경배를 올린다.
- 가정맹세를 제창한다.
- 부모 중 한 사람이 보고기도를 올린다. 하늘부모님의 자녀로서 받아 줄 것을 간구하며, 하늘부모님의 뜻을 중심하고 최선을 다해 아기를 양육

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한다.

- 촛불을 끄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103일식

103일식은 태어난 아기가 지상에서 백일(10수의 10배) 기간을 채우고 성장수인 3일을 보낸 뒤 존재기대 4수를 중심한 새출발을 감사드리며 축복하는 의식이다. 103일식 현수막을 설치하고 참부모님의 존영과 성초 등을 준비한다. 준비한 장소를 성염으로 성별한다.

1) 103일식 순서

- 성초를 밝힌다.
- 아기의 부모는 준비한 단을 향하여 선다.
- 부모는 아기를 양 팔로 안는다.
- 묵도를 드린다.
- 아기의 머리가 북쪽을 향하도록 단 앞에 눕힌다.
- 1배 경배를 올린다.
- 가정맹세를 제창한다.
- 부모 중 한 사람이 보고기도를 올린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아기를 지금까지 잘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크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 드린다. 또한 부모로서 하늘부모님의 뜻을 중시하고 아기를 정성을 다해 잘 돌보고 양육할 것을 다짐한다.
- 촛불을 끄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성인식

성인식은 만 18세를 맞이한 축복가정 자녀들이 성인으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주어진 책임분담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보고하는 성인 전환의식이다.

축복가정 자녀들이 성인식을 거치고 나면 부모와 함께 축복 준비를 위한 가정적 정성의 기대를 세우는 가운데 참부모님의 주관 아래 언제라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축복가정 자녀들은 성인식을 통해 신앙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1) 성인식 순서

다음의 순서로 행할 수 있으나 좀 더 보완의 여지가 있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

- 개회선언
- 경배
- 천일국가 제창
- 가정맹세 제창
- 보고기도
- 꽃다발 봉정
- 성수의식
- 성인선서
- 성인증서 수여
- 케이크 커팅

- 축사
- 축가(축시)
- 축도
- 기도
- 억만세 삼창
- 폐회



입양

양자·양녀의 필요성

하늘부모님께서는 축복받은 혈통을 유지하고 번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계신다. 하늘부모님의 축복은 영원하며, 그리고 하늘부모님께서 축복한 혈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지상에 사랑의 완성을 보기 위해 자녀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 부부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포함한 4대 심정권을 경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

참부모님께서 “축복의 이상은 미래의 이상이며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이상이다. 우리만을 위한 이상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마찬가지로 참부모님께서 매칭을 진행하실 때 앞으로 태어날 후손에 대해 깊이 고려한 후 짝을 맺어 주셨다. 축복받은 모든 부부들에게 아이를 갖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들은 많은 이유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참부모님께서는 ‘양자, 양녀’의 입양을 허락해 주셨다. ‘양자, 양녀’를 입양할 수 있게 된 것은 축복가정들에게 엄청난 은사이다. 한 가정이 아이를 갖지 못한 가정을 위해 배 아파 낳은 아이를 양자·양녀로 보내는 것은 가정연합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이기도 한다. 이 은사를 통해서 아이 없는 가정들도 하늘부모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이상적인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양자·양녀를 받는 부부의 마음자세

다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받은 가정들은 불임 등의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과 그러한 축복을 나눌 수 있게 장려한다. ‘하늘부모님께서 아이가 없는 가정이 내 가정을 통해 양자·양녀를 얻을 수 있게 바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낳기 전에 미리 아이를 양자·양녀로 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

입양 과정에서 관련된 두 가정이 종종 특별한 만남으로 인연을 맺게 된다. 축복을 위한 매칭과 마찬가지로 몇 가정은 뭉시를 통해서 양자로 아이를 보내야 할 가정의 이름을 알게 된다. 이때 부모의 심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가정이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해당 두 가정은 임신 전에 혹은 임신 초기 상태에 만남을 가지며 입양절차를 확실하게 하며 입양 약속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임신기간 내내 아이가 봉헌될 가정의 아이로 인식하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35)

아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하늘에 봉헌한다는 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하며, 아이를 양자로 봉헌한다는 같은 심정을 지녀야 한다.

두 가정의 관계

양가에서는 임신 전에 약속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늦어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양자를 받을 쪽도 ‘상대의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내 아이가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내적 및 외적 준비를 하며 아이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적으로 양가 모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를 친척처럼 잘 대하고 소통하며 두 가족 사이에 아름다운 가족전통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아이는 자신의 입양 상태를 인식해야 한다.

양자를 받는 가족은 기본적으로 전체 출생 비용(산전 관리, 병원 및 출산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양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봉헌식과 입양식

봉헌식과 입양식은 어느 쪽이 먼저라도 상관없다. 이에 대해 양가에서 결정하면 된다. 입양식을 먼저 하는 경우 아이를 양자로 받은 가정의 자녀로서

봉헌식을 한다. 봉헌식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양자를 바치는 가정의 자녀로서 봉헌식을 하게 된다. 다만 입양식 후 양자를 얻은 가정이 자신의 가정의 자녀로서 다시 봉헌식을 해도 상관없다. 입양식을 생후 며칠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빠른 시기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에는 공물이나 촛불 같은 것은 불필요하지만 목회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목회자가 올리는 보고기도는 다음과 같다.

“이 아이가 ○○○ 가정에서 ○○○ 가정에 온 것을 천상·지상이 공인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개재하여 이 자녀의 영원한 행복,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 달성을 위해 입양인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자녀가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그리고 참자녀의 3대를 모시는 충효의 자녀로 키워 나가겠다는 결심을 굳힐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양가 대표들이 보고기도를 올린다. 보통은 남편이 기도한다. 특히 양자를 받는 가정의 남편은 아버지가 되는 것을 자각하고 기도를 올려야 한다. 자녀의 명명을 할 때 양 가정의 축복구분이 다른 경우 양가의 축복구분에 해당되는 돌림자를 어느 쪽 상관없이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양자를 받는 가정의 돌림자를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입양의 은혜와 입양과정

입양은 하늘부모님이 개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이 정식으로 성립될 때 양자를 받는 쪽이 부모가 되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